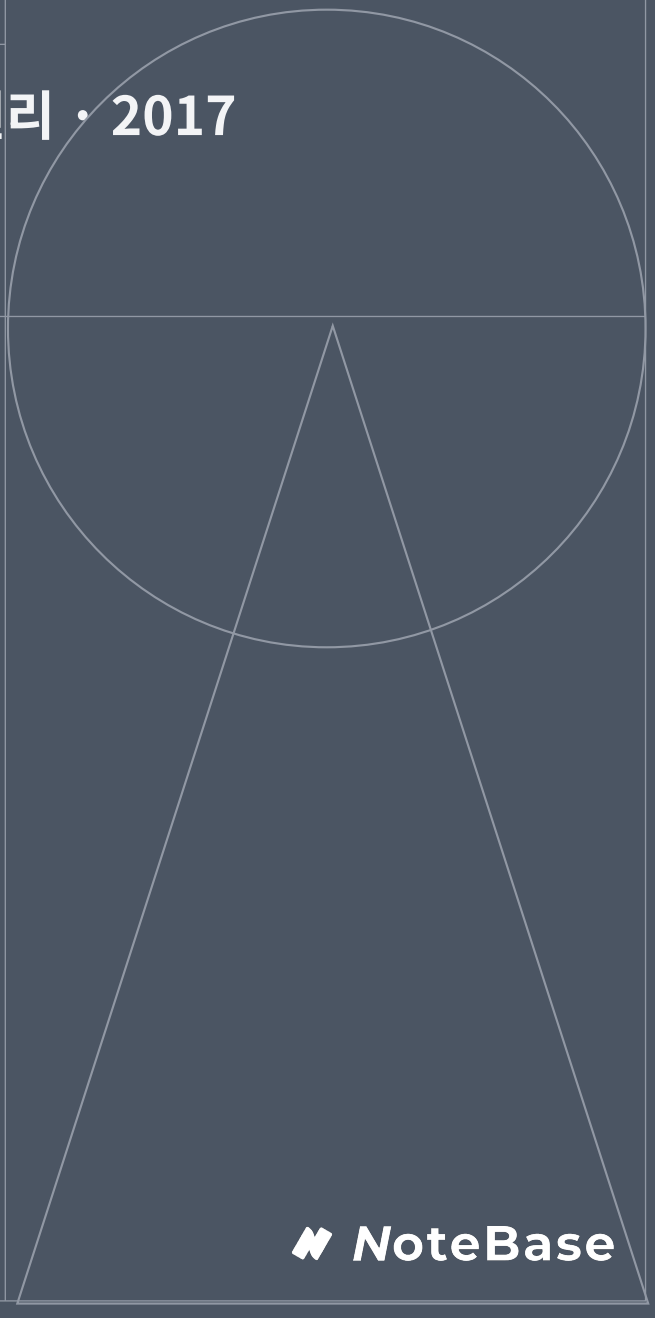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7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7

문 1.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으며, 정보이용자들이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④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오류가 없다'는 표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추정치라도 추정이라는 점과 추정절차의 성격·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다. 정보가 미래결과의 예측에 도움이 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O: 예측가치는 정보가 **미래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갖는 가치이다. 정보 자체가 미래의 예상 수치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매출액도 이용자가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③ O: 비교가능성은 항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다른 기업의 정보나 같은 기업의 서로 다른 기간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④ X: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금액의 추정치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추정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절한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면 그 추정치도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NoteBase

문 2.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없는 거래는?

① 차입금의 상환

② 유상증자

③ 사채의 발행

④ 주식배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비현금거래**이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뿐 현금의 유출입이 없어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차입금이나 납입자본 등 자금 조달 구조를 바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다. 따라서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래라도 **현금의 유출입이 있어야**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한다.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부채가 줄면서 현금이 나가므로 재무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유상증자나 사채의 발행으로 현금을 조달하면 각각 자본이나 부채가 늘면서 현금이 들어오므로 재무활동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주주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거래이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으며, 현금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배당은 재무활동과 관련된 비현금거래로서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의 비교를 통한 수정분개 추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계정과목	수정전시산표	수정후시산표
㉠	이자비용	₩3,000	₩5,000
	미지급이자	₩1,000	₩3,000
㉡	상품	₩1,500	₩2,500
	매입	₩6,000	₩0
	매출원가	₩0	₩5,000
㉢	선급보험료	₩2,400	₩1,200
	보험료	₩2,000	₩3,200
㉣	선수임대수익	₩1,800	₩1,200
	임대수익	₩1,500	₩2,100

① ㉠ 차변: 이자비용 ₩2,000
대변: 미지급이자 ₩2,000

② ㉡ 차변: 매출원가 ₩6,000, 상품 ₩1,000
대변: 매입 ₩7,000

③ ㉢ 차변: 보험료 ₩1,200
대변: 선급보험료 ₩1,200

④ ㉣ 차변: 선수임대수익 ₩600
대변: 임대수익 ₩6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에서는 매입 6,000원을 없애고 매출원가 5,000원을 인식해야 한다. 상품의 순증가액은 1,000원이므로, 올바른 수정분개는 차변에 **매출원가 5,000원과 상품 1,000원**, 대변에 **매입 6,000원**을 기록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이자비용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미지급이자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2,000원 증가했다. 이는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변 이자비용 2,000원, 대변 미지급이자 2,000원으로 분개한다.

② X: ㉡의 상품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 증가하고, 매입은 6,000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며, 매출원가는 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상품에 당기매입을 더한 금액 중 기말에 남은 상품을 제외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되므로, 매출원가는 1,500 + 6,000 − 2,500 = 5,000원이다. 따라서 수정분개를 순액으로 나타내면 **차변 매출원가 5,000원 · 상품 1,000원, 대변 매입 6,000원**이다. 선지처럼 매출원가 6,000원과 매입 7,000원을 기록하면 매출원가가 6,000원이 되고 매입에 대변 잔액 1,000원이 남아 수정후시산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O: ㉢의 선급보험료는 2,400원에서 1,200원으로 1,200원 감소하고, 보험료는 2,000원에서 3,200원으로 1,200원 증가했다. 미리 지급해 자산으로 기록한 보험료 중 **당기에 보험 혜택을 받은 부분**을 비용으로 바꾸는 수정이다. 비용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변 보험료 1,200원, 대변 선급보험료 1,200원으로 분개한다.

④ O: ㉣의 선수임대수익은 1,800원에서 1,200원으로 600원 감소하고, 임대수익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증가했다. 미리 받은 임대료 중 **당기에 임대 제공이 완료된 부분**을 부채에서 수익으로 바꾸는 수정이다. 부채 감소는 차변, 수익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차변 선수임대수익 600원, 대변 임대수익 600원으로 분개한다.

NoteBase

문 4. 도소매기업인 (주)한국의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 매출원가는? (단, 모든 매입거래는 외상 매입거래이다)

기초매입채무 ₩43,000
기말매입채무 ₩41,000
매입채무 현금상환 ₩643,000
기초재고자산 ₩30,000
기말재고자산 ₩27,000

① ₩642,000
② ₩644,000
③ ₩646,000
④ ₩64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채무가 2,000원 감소했으므로 당기매입액은 **현금상환액보다 2,000원 적은** 641,000원이다. 여기에 **재고자산 감소액 3,000원**을 더하면 매출원가는 644,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매입액 계산: 모든 매입거래가 외상거래이므로 매입하면 매입채무가 증가하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감소한다. 기말매입채무는 기초매입채무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현금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당기매입액은 643,000 + 41,000 - 43,000 = 641,000원이다. 매입채무가 43,000원에서 41,000원으로 줄었으므로 **현금상환액이 당기매입액보다 2,000원 많다**.

2. 매출원가 계산: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을 차감**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매출원가는 30,000 + 641,000 - 27,000 = 644,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5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2015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20,000, ₩100,000이었다. 2016년 7월 1일에 ₩90,000의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처분이익 ₩50,000

② 처분이익 ₩30,000

③ 처분손실 ₩15,000

④ 처분손실 ₩12,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5년 말 손상차손을 반영한 장부금액 12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상각한다. 2016년 상반기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105,000원이므로, 처분대금 90,000원과의 차액인 **처분손실 15,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2015년 감가상각: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취득원가 20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0 ÷ 5 = 40,000원이다. 2015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므로 1년분을 상각하며, 손상 반영 전 연말 장부금액은 200,000 − 40,000 = 160,000원이다.

2. 2015년 말 손상차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따라서 120,000원과 100,000원 중 큰 120,000원이 회수가능액이다. 장부금액 160,00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160,000 − 120,000 = 40,000원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120,000원으로 낮춘다.

3. 2016년 처분 전 감가상각: 손상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5년 중 1년이 지났으므로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며, 연간 감가상각비는 120,000 ÷ 4 = 30,000원이다. 7월 1일 처분이므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월할 상각한다. 감가상각비는 $30{,}000 \cdot \frac{6}{12} = 15{,}000$원이고, 처분 시 장부금액은 120,000 − 15,000 = 105,000원이다.

4. 유형자산처분손익: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처분 시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90,000 − 105,000 = −15,000원이므로, 장부금액보다 적은 대가를 받은 데 따른 처분손실 15,000원이며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상품을 ₩500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25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다. 이 거래 직전의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각각 200%, 100%라고 할 때, 이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감소

② 유동비율: 변동없음, 당좌비율: 감소

③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변동없음

④ 유동비율: 변동없음, 당좌비율: 변동없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상품 매입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각각 250원 증가하지만, 기존 유동비율이 200%이므로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상품은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당좌자산은 현금 지급액만큼 줄고 유동부채는 늘어나므로 **당좌비율도 감소**한다.

계산 과정

거래의 영향: 상품 500원은 재고자산의 증가이고, 현금 250원 지급은 당좌자산의 감소이다. 따라서 유동자산은 500 − 250 = 250원 증가하지만, **당좌자산은 250원 감소**한다. 나머지 대금 250원은 3개월 이내에 갚을 매입채무이므로 유동부채가 250원 증가한다.

거래 전 금액: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유동부채×100\%이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이다. 거래 전 유동부채를 L원이라 두면, 유동비율 200%에 따라 유동자산은 $2L$원이고 당좌비율 100%에 따라 당좌자산은 L원이다.

유동비율: 거래 후 유동자산은 $2L + 250$원, 유동부채는 $L + 250$원이다. 따라서 거래 후 유동비율은 $\frac{2L + 250}{L + 250} \times 100\%$이다. 유동비율이 200%를 유지하려면 유동부채 증가액 250원의 두 배인 500원만큼 유동자산이 늘어야 한다. 실제로는 250원만 늘었으므로 **유동비율은 200%보다 낮아진다**.

당좌비율: 거래 후 당좌자산은 $L - 250$원, 유동부채는 $L + 250$원이다. 따라서 거래 후 당좌비율은 $\frac{L - 250}{L + 250} \times 100\%$이다. 거래 전에는 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았지만, 거래 후에는 **분자는 줄고 분모는 늘어나므로** 당좌비율이 100%보다 낮아진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모두 감소하므로 ①의 내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6년 자본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에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 3월 2일: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700에 발행하였다.
◯ 5월 10일: 우선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600에 발행하였다.
◯ 9월 25일: 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보통주 주당 공정가치는 ₩1,000이었다.

① ₩20,000
② ₩40,000
③ ₩45,000
④ ₩6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 발행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건물을 받고 발행한 보통주도 주당 공정가치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 거래에서 발생한 초과금의 합계는 6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주식 발행금액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눈다. **액면금액 × 발행주식 수**는 자본금이며, 이를 발행금액에서 뺀 나머지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이 문제의 모든 주식은 액면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되었으므로, 거래별 초과금은 (주당 발행금액 − 주당 액면금액) × 발행주식 수로 계산한다.

3월 2일 보통주: 발행금액은 700원 × 100주 = 70,000원이고, 자본금 증가액은 500원 × 100주 = 50,000원이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700원 − 500원) × 100주 = 20,000원이다.

5월 10일 우선주: **우선주의 액면초과 발행액도 포함**한다. 발행금액은 600원 × 200주 = 120,000원이고, 자본금 증가액은 500원 × 200주 = 100,000원이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600원 − 500원) × 200주 = 20,000원이다.

9월 25일 건물 취득: 현금 대신 건물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 거래이다. 주어진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발행금액은 1,000원 × 50주 = 50,000원이다. 이 중 500원 × 50주 = 25,000원은 자본금이고, 나머지 (1,000원 − 500원) × 50주 = 25,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연간 증가액: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없으므로 위 초과금에서 이를 상계할 금액은 없다. 2016년에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원 + 20,000원 + 25,000원 = 65,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6년 토지와 단기차입금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의 투자 및 재무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기초	기말
토지(유형자산)	₩150,000	₩250,000
단기차입금	₩100,000	₩180,000

<추가자료>

○ 토지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2016년에 손상차손은 없었다.

○ 2016년 중에 토지(장부금액 ₩50,000)를 ₩75,000에 매각하였다.

○ 2016년 중에 단기차입금 ₩100,000을 차입하였다.

① 토지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00,000이다.

② 토지의 취득과 매각으로 인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75,000이다.

③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80,000이다.

④ 단기차입금의 상환 및 차입으로 인한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100,000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각한 토지의 장부금액 50,000원을 반영하면 당기 토지 취득액은 150,000원이다. 여기서 **실제 매각대금 75,000원**을 차감하면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75,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이므로 토지 취득액과 매각대금은 각각 투자활동 현금유출과 현금유입이다. 단기차입금의 차입액과 상환액은 각각 재무활동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다.

① X: 토지를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취득액을 더하고 매각한 토지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액은 250,000 − 150,000 + 50,000 = 150,000원이다. 100,000원은 토지 장부금액의 순증가액이며,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50,000원**이다.

② O: 토지 취득에 지급한 150,000원에서 매각으로 받은 75,000원을 차감하므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150,000 − 75,000 = 75,000원이다. 이때 현금유입은 매각한 토지의 장부금액 50,000원이 아니라 **실제 매각대금 75,000원**이다.

③ X: 기초 단기차입금 100,000원에 당기 차입액 100,000원을 더하고 상환액을 빼면 기말 잔액 180,000원이 된다. 따라서 상환액은 100,000 + 100,000 − 180,000 = 20,000원이다.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20,000원**이며, 80,000원은 단기차입금 잔액의 순증가액이다.

④ X: 차입으로 받은 100,000원 중 상환에 지급한 2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100,000원은 신규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액이고, **상환까지 반영한 순현금유입은 80,000원**이다.

NoteBase

문 9.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시용판매 상품

② 위탁판매를 하기 위하여 발송한 후,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적송품

③ 판매대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 인도한 상품

④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선적되어 운송 중인 미착상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할부판매는 **대금 회수 시점과 상품 판매 시점이 다르다**. 이미 판매하여 인도한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며, 아직 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채권으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기말 재고자산은 상품의 보관 장소나 대금 회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조건에 따라 상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다. 아래 O/X는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는 진술을 기준으로 한다.

① O: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시용판매는 고객이 상품을 사용해 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반환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판매로 인식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상품을 보냈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② O: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위탁판매를 위해 보낸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를 대행하는 상품이다. **수탁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자의 매출로 인식한다.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은 위탁자인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③ X: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부판매는 상품을 판매한 뒤 대금만 여러 기간에 나누어 받는 거래이다. 이미 상품을 판매하여 인도했으므로 상품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미회수 판매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채권**으로 남는다.

④ O: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도착지 인도조건은 상품이 **약정된 도착지에 도착하여 인도될 때**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조건이다. 기말 현재 운송 중이라면 아직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의 분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기초재고자산 ₩700,000 ◯ 기말재고자산 ₩500,000
◯ 기초매입채무 ₩340,000 ◯ 기말매입채무 ₩160,000
◯ 매입채무회전율 4회

① 4회
② 3회
③ 2회
④ 1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입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다. 기초·기말 재고를 반영한 매출원가 1,200,000원과 평균재고자산 600,000원을 이용하면 2회이다.

계산 과정

1. 평균매입채무와 당기매입액 계산: 매입채무회전율은 당기매입액을 평균매입채무로 나눈 값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평균매입채무는 $\frac{340,000+160,000}{2}=250,000$원이다. 회전율이 4회이므로 당기매입액은 250,000 × 4 = 1,000,000원이다.

2. 매출원가 계산: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재고의 원가가 된다. 여기서 **팔리지 않고 남은 기말재고자산을 빼면** 판매된 재고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700,000 + 1,000,000 − 500,000 = 1,200,000원이다.

3. 평균재고자산 계산: 재고자산회전율의 분모에도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평균재고자산은 $\frac{700,000+500,000}{2}=600,000$원이다.

4.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재고자산회전율은 당기의 매출원가가 평균재고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 = (1,200,000)/(600,000) = 2회이며, ③의 2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

③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충당부채의 현재의무에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의제의무는 기업의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 등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여 생기는 의무이다.

선지별 해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에 드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

① O: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지출할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② X: 현재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서 생기고, 의제의무는 기업의 과거 관행·공표된 정책·구체적인 발표로 다른 당사자가 기업의 책임 이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될 때 생긴다. 따라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뜻이다. 유출이 확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발생과 미발생의 가능성이 같은 경우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O: 충당부채의 대상은 과거사건에서 생겨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이다. 미래의 영업방식을 바꾸면 지출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향후 특정 방식으로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앞으로 영업방식을 바꾸어 피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자본은 주주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나타낸다.

③ 부채란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④ 일반적으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주주에 대한 의무'와 '자원의 활용'이 잘못되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며, 자산이 자금의 운용을 나타낸다면 자본은 주주 출자 등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에 경제적효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여 현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고자산은 미래 경제적효익을 제공한다. 단순히 자원을 보유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

② X: 자본은 주주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만 원이고 부채가 60만 원이면 자본은 40만 원이다. 또한 자원의 활용, 즉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운용했는지는 자산이 나타낸다. 자본은 주주의 출자와 기업에 유보된 이익 등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낸다.

③ O: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며, 이를 이행하려면 현금 등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내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인 매입채무가 발생한다. 단순히 앞으로 지출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자본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는 출자, 이익의 유보 등 자본이 생긴 원천과 성격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은 자본의 일부**이며, 자본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다.

NoteBase

문 13. 2016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손익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단, 손상차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매출 ₩2,000,00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200,000
매출원가 ₩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00,000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200,000
임대수익 ₩100,000
이자비용 ₩100,000

① ₩1,000,000
② ₩1,100,000
③ ₩1,200,000
④ ₩1,3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과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수익 2,100,000원에서 비용 90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2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당기순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1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2016년 초 설립되어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없으므로,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200,000원도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항목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 합계: 매출 2,000,000원과 임대수익 100,000원을 더한다. 수익 합계는 2,000,000 + 100,000 = 2,100,000원이다.

비용 합계: 매출원가 500,000원,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200,000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00,000원, 이자비용 100,000원을 합하면 900,000원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비용에 포함한다.

당기순이익: 수익 합계에서 비용 합계를 차감하면 2,100,000 − 900,000 = 1,200,000원이다. 이는 ③의 1,20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하여 비용처리한다. (주)한국의 2016년 무형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에 인식할 무형자산상각비는? (단, 2016년 이전에 인식한 무형자산은 없으며, 무형자산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 1월 1일: 새로운 제품의 홍보를 위해 ₩10,000을 지출하였다.
◯ 4월 1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는 ₩200,000이었다.
◯ 7월 1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5,000을 지출하였다.

① ₩500
② ₩2,500
③ ₩30,500
④ ₩32,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형자산 상각 대상은 **7월 1일 취득한 라이선스 5,000원**이다.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연간 상각비 1,000원 중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인 5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월 1일 홍보 지출: 새로운 제품의 홍보비 10,000원은 **지출 시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상각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4월 1일 영업권 평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 전체의 가치와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므로, 회계법인이 200,000원으로 평가했더라도 이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기록하거나 상각하지 않는다.

7월 1일 라이선스 취득: 라이선스는 취득한 권리이므로 지급액 5,000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전에 인식한 무형자산이 없으므로 이번 상각비 계산의 대상은 이 라이선스뿐이다.

연간 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동일하게 배분한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므로 연간 상각비는 $\frac{5,000-0}{5} = 1,000$원이다. 이는 1년 전체에 대한 비용이다.

2016년 상각비: **월할 상각**하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반영한다. $1,000 \times \frac{6}{12} = 500$원이므로, 2016년에 인식할 무형자산상각비는 5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A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3년 만기 B회사채(2016년 1월 1일 액면발행, 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지급)를 ₩1,010,000에 취득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A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9,500이고, B회사채의 공정가치는 ₩1,050,000이다. (주)한국의 A주식과 B회사채 보유가 2016년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당기손익 ₩40,000 감소, 기타포괄손익 ₩30,000 증가

② 당기손익 ₩4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50,000 감소

③ 당기손익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불변

④ 당기손익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50,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주식의 평가손실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을 감소**시킨다. B회사채 취득대금에 포함된 취득 전 경과이자 10,000원은 수익에서 제외하므로, 취득 후 9개월분인 **이자수익 30,000원**만 당기손익을 증가시킨다.

계산 과정

A주식: 문제에서 제시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분류에 따르면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금액은 100주 × 10,000원 = 1,000,000원이고, 기말 공정가치는 100주 × 9,500원 = 950,000원이다. 평가손실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B회사채의 취득금액: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므로 4월 1일 취득대금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취득 전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금액은 1,000,000 × 4\% × (3)/(12) = 10,000원이다. 따라서 채권 자체의 취득원가는 1,010,000원 − 10,000원 = 1,000,000원이다. 경과이자 10,000원은 연말 이자 수취 시 회수할 금액이므로 이자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B회사채의 손익: 채권 자체를 액면금액에 취득하였으므로 할인·할증액의 상각 없이 취득 후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1,000,000 × 4\% × (9)/(12) = 30,000원이다. 연말에 받는 연간 이자 40,000원 중 10,000원은 취득 전 경과이자의 회수이고, 나머지 30,000원이 당기손익을 증가시킨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기말 공정가치 1,050,000원으로 인한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합계: A주식의 당기손익 영향은 0원이고 B회사채의 이자수익은 30,000원이므로 당기손익은 30,000원 증가한다. 기타포괄손익에는 A주식 평가손실만 반영되어 50,000원 감소한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의 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925,390에 발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이 ₩947,929이라면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① 7%

② 8%

③ 9%

④ 1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에서 사채 장부금액의 증가액을 빼면 **실제 지급이자 70,000원**이 나온다. 이를 액면금액 1,000,000원으로 나눈 표시이자율은 **연 7%**이다.

계산 과정

1. 이자비용 계산: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에 발행했으므로 2016년의 이자비용은 1년분인 925,390원 × 10% = 92,539원이다.

2.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계산: 액면금액 1,000,000원보다 낮은 925,390원에 발행한 할인발행 사채이므로,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면서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장부금액 증가액**인 947,929원 − 925,390원 = 22,539원이 2016년의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3. 지급이자 계산: 이자비용은 실제 지급이자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계이다. 따라서 실제 지급이자는 92,539원 − 22,539원 = 70,000원이다. 이자비용 92,539원 중 22,539원은 현금 지급 없이 사채 장부금액에 가산된 부분이다.

4. 표시이자율 계산: 표시이자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자를 정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표시이자율은 $\frac{70,000}{1,000,000} \times 100 = 7\%$로, 연 7%이다.

계산된 연 7%는 ①의 7%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은 별도의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의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평가계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업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 O: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그 영향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현금흐름 정보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주므로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③ O: 중요하지 않은 항목까지 모두 별도로 표시하면 재무제표가 복잡해져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반면 유사한 항목의 집합이라도 그 금액이 중요하면 별도로 표시한다.

④ X: 상계표시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은 **동일 자산의 평가계정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상계표시가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별도의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부채가 아니라 매출채권의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100만 원에서 대손충당금 5만 원을 차감한 95만 원은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이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2016년 초 보통주 10주(주당 액면금액 ₩500, 주당 발행금액 ₩600)를 발행하였으며,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100이 발생하였다. (주)한국의 주식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자본은 ₩6,000 증가한다.

② 자본금은 ₩5,900 증가한다.

③ 자본잉여금은 ₩900 증가한다.

④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100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식발행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며,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액면초과액 ₩1,000에서 발행원가 ₩100을 뺀 **₩900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주식발행으로 받은 대금은 10주 × ₩600 = ₩6,000이지만, 직접 관련된 발행원가 ₩100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 전체의 증가액**은 ₩6,000 − ₩100 = ₩5,900이다.

② X: 자본금은 발행대금 전체가 아니라 **발행주식 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본금 증가액은 10주 × ₩500 = ₩5,000이다. ₩5,900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을 합한 자본 전체의 증가액이다.

③ O: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10주 × (₩600 − ₩500) = ₩1,000이며, 이를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없으므로 이와 상계할 금액도 없다. 여기에서 **직접 관련된 주식발행원가 ₩100을 차감**하므로 자본잉여금은 ₩1,000 − ₩100 = ₩900 증가한다.

④ X: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당기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문제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1,000에서 ₩100을 차감하며,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재고자산 금액과 당기매입액이 일정할 때,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과대계상 될 경우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 된다.

② 선입선출법은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③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기록유지가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특정시점의 재고자산 잔액과 그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원가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도착지 인도기준에 의해서 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운임은 매입자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하거나 생산한 항목부터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말에 남은 재고자산에는 가장 최근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항목의 원가가 배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 금액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빼서 구한다.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된다.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므로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② O: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하거나 생산한 항목의 원가를 먼저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에는 **가장 최근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항목의 원가**가 남는다. 이는 원가를 배분하는 가정이므로 실제 물품이 반드시 그 순서대로 출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감소와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기록유지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장부만으로 특정 시점의 재고자산 잔액과 누적 매출원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선지의 장단점은 **계속기록법**에 관한 설명이다. 계속기록법은 매입과 판매 때마다 재고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므로 기록유지가 번거로운 대신 장부상 재고자산 잔액과 매출원가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④ X: 도착지 인도기준에서는 물품이 약정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자가 인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구간의 운임도 매도자가 부담한다. 이 운임은 **매도자의 판매비**로 처리하며, 매입자의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선적지 인도기준에서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운임은 매입자의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5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2,000,000에 일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었다. 건물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750,000

② ₩625,000

③ ₩600,000

④ ₩5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건물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1,200,000원이다. 2016년에는 **첫 번째 상각연도의 나머지 6개월과 두 번째 상각연도의 첫 6개월**이 포함되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건물의 취득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으므로 총 취득원가 2,000,000원을 **취득 당시 공정가치의 상대적 비율**로 배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0원과 1,500,000원이므로 건물의 배분 비율은 $\frac{150}{100+150}=\frac{3}{5}$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200\cdot\frac{3}{5}=120$(만원), 즉 1,200,000원이다.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이 금액 전부가 감가상각대상금액이다.

연수합계법의 연간 상각액: 내용연수 3년의 연수합계는 3 + 2 + 1 = 6이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각 상각연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첫 번째 상각연도의 연간 상각액은 $120\cdot\frac{3}{6}=60$(만원), 두 번째 상각연도의 연간 상각액은 $120\cdot\frac{2}{6}=40$(만원)이다.

2016년의 월할 상각: 2015년 7월 1일 취득했으므로 **첫 번째 상각연도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2016년 1~6월에는 첫 번째 상각연도의 연간 상각액을, 7~12월에는 두 번째 상각연도의 연간 상각액을 각각 6개월분씩 반영한다. 상반기 감가상각비는 $60\cdot\frac{6}{12}=30$(만원), 하반기 감가상각비는 $40\cdot\frac{6}{12}=20$(만원)이다.

2016년 감가상각비: 30만원 + 20만원 = 50만원, 즉 50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